

# A Study on Drinking Culture and Attitude by Gender and Grade among College Students

Jee-Hyun Kim\*, Chai-Soo So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rinking culture and attitude difference by gender and grade of Korean college students.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ful differences by two variables about drinking pattern, culture and related policies. The analysis showed that regardless of gender, far more students were against than in favor of prohibition on drinking within campus, whose legislation recently failed. Meanwhil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y grade in victimization experience regarding drinking within the campus, and by gender in frequency, beverage type, volume, onset of drinking within school.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gender-based difference in response to experience of damage caused by drinking, but the research results of the related papers show that the female students are more dangerous and need special attention and care. Universities should implement a professional counseling program that is customized according to gender or level of education, and managed by group. Moreover, health authorities must seek a way to lead this move, such as providing incentives to the universities, which efficiently deal with students' drinking problem. And the prohibition on drinking within campus, whose legislation recently failed should be reconsidered.

▶ Keyword: drinking culture, drinking pattern, gender, grade, prohibition on drinking

## I. Introduction

대학 캠퍼스 내 음주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매년 2~3월 대학가에선 일종의 통과 의례로 신입생에 음주를 강요하는 '사발식' 관행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과도한 음주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대다수가 신입생들인 대학생 음주 사망 사건은 2006년 이후 매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1년 대학 캠퍼스 내 음주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입법이 무산되었다[1]. 이후 음주로 인한 캠퍼스 내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건복지부는 2014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해 재차 이 사안에 대한 법제화를

시도했으나, 사실상 입법예고조차 못한 상태이다. 그 사이 캠퍼스 내 음주를 둘러싼 사회각계, 대학 내부의 찬반 논란은 점점 거세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캠퍼스 안팎 대학생들의 전체 음주량은 크게 늘고 있다. 전국 82개 대학 및 전문대 학생 5,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남녀 대학생의 1회 음주량을 (최근 1년간 1회 음주량)과 고위험 음주율(한번에 남 7잔, 여 5잔 이상, 주 2회 이상 마신 경우)이 모두 성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우리나라 대학생의 월간 음주율은 75.45%([3])로, 미국 대학생의 70%보다도 높다[4].

이 같은 결과는 정부 당국의 입법 시도가 8년여 간 논란 속에서 무산된 가운데 대학생들의 음주 실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

---

• First Author: Jee-Hyun Kim, Corresponding Author: Chai-Soo Song  
\*Jee-Hyun Kim (jhkim@seoil.ac.kr), Dept. of Software Engineering, Seoil University  
\*\*Chai-Soo Song (anchor007@gachon.ac.kr),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CHA University  
• Received: 2018. 12. 06, Revised: 2019. 01. 06, Accepted: 2019. 01. 08.  
• The presen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by the Research Grant of Seoil University in 2018.

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그간 보건 당국의 입법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음주 율을 포함한 모든 지표에서 남녀 대학생이 모두 성인보다 높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생애를 통틀어 대학 재학 중 가장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있다는 근거로서, 학내 음주 금지의 입법 취지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관리’를 요체로 하는 국민 건강 진흥책에 부합함을 보여주는 자료이다(Table 1)(Fig.1).

Table 1. Comparison of drinking rate by Students and Adults (unit : %, M:Male, F:Female)[5]

	drinking rate/year		drinking rate/month		high risk drinking rate	
	M	F	M	F	M	F
student	95.6	96.0	78.0	72.9	23.3	17.2
adults (age19-29)	92.6	85.5	76.8	64.1	17.7	9.6
adults(total)	86.1	67.1	74.5	44.5	21.2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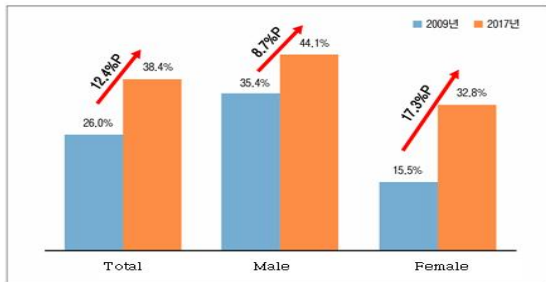


Fig. 1. drinking rate over 10 glasses at once in 2009 and 2017

2012년 국회에서 폐기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입법예고)의 학내음주 관련 조항은 교외 MT를 비롯한 학교 밖 모든 곳이 아니라 단지 캠퍼스 내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이 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대학생 음주를 완전 근절할 수는 없었지만, 깊이 있는 사회적 담론과 함께 오랜 기간의 입법 시도는 대학 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학생들의 외적 행태를 바꿔 놓은 건 사실이다.

지난 8년간 많은 대학들이 축제 기간 학내주점 설치 금지, 잘못된 음주관행 개선 캠페인, 상습 음주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등 자정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특히 축제 기간 학내 음주 관행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6].

대학생의 음주행태 심층조사 보고서[3]에 따르면 월간 음주 율과 최근 12개월간 1회 10잔 이상 음주율에서 남학생(이하 M 또는 Male 표기)이 여학생(이하 F 또는 Female 표기)보다 5.1~11.3% 높으며(Table 1)(Fig.1), 남녀의 음주 동기에도 심리사회적 차이가 있고 특히 심리적 위험 요인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체로 남성들은 대인 관계 때문에, 여성들은 긴장, 불안, 좌절, 문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알코올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본 연구는 대상자를 경기도 소재 C대, G대 등 두 대학 재학생에 국한시켜 전체 대학생의 음주를 설명하기엔 표집이 작고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음주문화의 특성상 대학의 음주 문화는 성인의 음주 문화와 많은 공통점이 있으며, 대학별 로도 음주 문화와 실태에 있어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을 감안했다.

대학의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은 사회 진출 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건전한 음주 문화와 음주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의 연구 과제를 도출하였다.

- 1) 대학생 음주 실태와 음주 문화에서의 성별·학년별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가?
- 2) 입법 무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학내 음주 금지에 대한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태도는 어떠한가?
- 3) 학내 음주 금지에 대해 대학생의 성별·학년별 태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가?
- 4) 대학생 음주 실태와 인지 심리적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보건 당국과 대학들은 앞으로 학생 음주와 관련하여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가?

## II. Theoretical Background

### 1. Drinking Customs and Culture Differences by Gender among Students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의 대부분은 술과 관련되어 발생하였다. 국내의 한 연구에서도 음주 빈도가 높은 여대생이 그렇지 않은 여대생보다 데이트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8]. 남성들의 성추행과 성폭행을 연달아 폭로한 최근 ‘미투’ 캠페인의 상당수 사례도 음주와 연관되어 있다. 같은 양의 음주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성 간경화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알코올 의존에 이르게 되는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알코올 치료에 참여하는 여성에 관한 연구는 음주 경력이 짧고 음주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 손상을 더 일찍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10]. 알코올분해효소가 간 외에 위와 장에도 있으며, 여기서 1차 분해가 이뤄지는데,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분해 능력이 떨어진다[11]. 따라서 같은 양의 알코올이라면 여성이 더 빨리 취하며, 같은 양의 알코올을 소비했을 때 여성은 남성보다 더욱 강한 신체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신체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볼 수 있다[12][13]. 특히 생리 직전 호르몬 요인으로 평소보다 술이 더 빨리 흡수되어 쉽게 취하는 경향이 있다[14].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1회 10잔 이상 음주자 비율은 남학생이 2009년 35.4%에서 최근엔 44.1%로, 여학생은 2009년 15.5%에서 최근엔 32.8%로, 특히 폭음하는 여학생 비율이 크게 늘었다[2].

## 2. Factors Influencing Drinking Behavior

### 2.1 Behaviorism Theory

대학생의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요인은 음주 동기인데 크게 고양동기, 사교동기, 대처동기, 동조동기로 나뉜다[15]. 음주 결과 차원에서 정적 강화 혹은 부적 강화로, 동기가 내부에서 왔는가, 외부에서 왔는가에 따라 앞선 4가지로 음주 동기를 분류하였다. 내부에서 온 강화의 동기, 즉 긍정적 기분이나 안정감을 늘리기 위해 음주했다면 고양동기(enhancement motives)에 의한 것이고, 외부에서 온 정적 강화의 동기, 즉 긍정적인 사회적 보상을 얻기 위해 음주했다면 사교적 동기(social motives)에 의해 술을 마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내부에서 온 부적 강화의 동기, 즉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제어하기 위해 음주했다면 대처동기(coping motives)에 의한 것이고, 외부에서 온 부적 강화의 동기, 즉 사회적 비난이나 타인의 거부를 피하기 위해 음주했다면 동조동기(conformity motives)에 의한 것으로 구분한다.

### 2.2 Social Learning Theory(Cognitive & Emotional Factors)

대학생의 음주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고 부정적 정서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정서적 위로 경험과 원활한 사회적 관계유지 및 즐거움을 얻는 등의 음주 동기가 강할수록 문제 음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16].

인지 및 정서 측면에서 음주행동을 설명한 사회학습이론[17]은 상황과 인지가 행동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 중 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요인으로 음주 결과 기대와 자기 효능감을 주목한다[18]. 즉, 음주로 해서 얻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에 따라 음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 음주로 인해 신체 고양감 및 사교성이 향상된다는 기대를 우선적으로 나타내는 반면, 여성은 음주로 기분이 향상되고 통제감을 갖게 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대생은 남학생과 달리 스트레스 자체로 술을 마시기보다는 우울로 인한 정서 조절 등의 목적으로 음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20].

### 2.3 Social Environment Theory(Relational Factors)

여대생의 음주 목적은 사회적 지지추구, 문제해결, 회피중심 대처 순이었고, 남학생은 문제해결, 사회적 지지추구, 회피중심 대처 순이었다[21].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사회 관계적 요인이 우선순위로 꼽힌 것이다.

첫째, 가족 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가족 중 문제음주자의 존재 여부, 본인이 자각하는 가족의 음주에 대한 허용도, 가족의 낮은 정서적 지지 등이 개인의 음주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지목되는데, 여성에게도 이러한 변수는 남성과 유사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22].

둘째, 가까운 사람이나 교체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은 교체하는 사람이나 배우자를 통해 음주를 시작하거나 음주 행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많은 편이며, 문제가 있을 때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또래의 존재 역시 알코올 사용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 III. Analysis of Drinking Culture within Campus

### 1. Research and Study Method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C대학교 G대학 1~4학년 남녀 재학생중 무작위로 추출하였고, 남학생 296명, 여학생 254명으로 총 550명이 응답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 215명, 2학년 142명, 3학년 97명, 4학년 96명이다. 이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자료 수집을 위해 2017년 학기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보고식 평정의 형태를 취하였다. 대학생 음주 실태와 관련해서는 설문조사 전날까지 지난 1년 동안에 술을 마신 빈도와 주종, 주종별 1회 잔수(음주량)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학내 음주 금지에 대한 찬반, 음주의 필요성(교우 관계, 동아리, 사회활동), 학내 음주로 인한 피해 여부(소음, 학업 방해),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성적 만족도 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 5점 척도로, 향후 학내 음주가 법으로 금지된 이후에도 학내 음주(계속) 의향과 대학 졸업 후 음주 의향에 대해서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 3점 척도로, 입법 무산된 학내 음주 금지법 인지 여부와 부모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 예/아니오로 응답을 구성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 처리 및 분석은 SPSS V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성별, 학년별 등 독립 변인에 따른 음주 빈도, 음주 주종, 음주량, 최초 음주시기, 학내 음주 빈도, 입법 무산된 학내음주금지법 인지도, 향후 학내 음주가 법으로 금지된 이후 음주 의향, 졸업 후 음주 의향 등 종속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 학생의 성별(독립 변인)에 따른 학내 음주 금지에 대한 찬반, 입법 무산된 학내음주금지법 인지도, 음주의 필요성, 학내 음주로 인한 피해 여부,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성적 만족도 등 종속 변인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학년(독립변인)을 기준으로 위의 6가지 요인등의 종속 변인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였다.

## 2. Analysis of Drinking Experience of Students

### 2.1 General Characteristics of Questionnaire

총 550명 응답자중 학내음주 금지에 대한 반대 취지 응답은

44.3%(244명)로, 찬성 취지 응답 28.0%(154명)나 찬반 없음 취지의 응답 27.6%(152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입법 무산된 학내음주금지법을 알고 있는 비율은 73.1%(402명)였다. 음주 빈도는 1주일에 한번 정도라고 답한 비율이 41.3%(227명)로 가장 높았고, 한 달에 한 번 23.5%(129명), 두세 달에 한 번 이하 14.5%(80명) 순이었으며, 비음주자의 비율도 12.9%(71명)에 달했다.

대학 내 음주 경험은 거의 마시지 않는다 40.5%(194명), 가끔 마신다 34.9%(167명), 마신 적이 없다 18.4%(88명), 자주 마신다 6.3%(30명)로 집계돼 58.9%가 마신 적 없거나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향후 학내 음주가 법으로 금지된 후 이를 계속할 의향은 상황에 따라 41.5%(228명), 마시지 않겠다 39.1%(215명), 잘 모르겠다 19.5%(107명)로 법을 준수하겠다는 비율이 39.1%에 달했으나, 사회진출 후 음주 의향은 마시겠다는 비율이 80.4%(442명)로 술에 대해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했다(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Questionnaire Responder and Result

		1.00	
		no. of cases	%
gender	Total	(550)	100.0
	M	(296)	53.8
	F	(254)	46.2
grade	1	(215)	39.1
	2	(142)	25.8
	3	(97)	17.6
	4	(96)	17.5
drinking frequency	once or less 2 days	(43)	7.8
	once in a week	(227)	41.3
	once in a month	(129)	23.5
	beyond once in 2-3 months	(80)	14.5
	none	(71)	12.9
drinking volume	less than 4 glasses	(157)	28.6
	5-9glasses	(174)	31.6
	over 10glasses	(148)	26.9
drinking experience within campus	drink often	(30)	5.5
	drink occasionally	(167)	30.4
	drink few times	(194)	35.3
know that prohibition on drinking within campus whose legislation failed	never	(88)	16.0
	know	(402)	73.1
pros & cons of prohibition on drinking within campus	positive	(75)	13.6
	a little positive	(79)	14.4
	moderate	(152)	27.6
drinking intention after legislation of the prohibition on drinking within campus	a little negative	(152)	27.6
	negative	(92)	16.7
drinking intention after graduation	never drink	(215)	39.1
	depends on the status	(228)	41.5
degree of satisfaction in campus life	no idea	(107)	19.5
	positive	(442)	80.4
	negative	(37)	6.7
stay with parents / grandparents	no idea	(71)	12.9
	unsatisfied	(16)	2.9
	almost unsatisfied	(52)	9.5
	moderate	(230)	41.8
	a little satisfied	(210)	38.2
	very satisfied	(42)	7.6
	yes	(459)	83.5
	no	(91)	16.5

2.2 Differences of Drinking Frequency by Gender and Grade

음주 빈도에 대한 남녀 학생, 학년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은 1주일에 최소 한번 이상 음주 비율이 59.1%(175명)인 데 반해 여학생은 37.4%(95명)에 불과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음주 빈도

에 있어서 남학생,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그러나 음주 빈도에 있어 학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Table 3. Frequency of Drinking by Gender and Grade

(no. of persons)		once or more in 2 days	once in a week	once in a month	beyond once in 2,3 months	none	Total	$\chi^2$
		cases	%	%	%	%		
Total	(550)	7.8 (43)	41.3 (227)	23.5 (129)	14.5 (80)	12.9 (71)	100.0	
gender	M (296)	10.5 (31)	48.6 (144)	21.6 (64)	8.8 (26)	10.5 (31)	100.0	32.720 (P<.001)
	F (254)	4.7 (12)	32.7 (83)	25.6 (65)	21.3 (54)	15.7 (40)	100.0	
grade	1 (215)	7.9 (17)	49.3 (106)	21.4 (46)	10.2 (22)	11.2 (24)	100.0	19.884
	2 (142)	5.6 (8)	33.8 (48)	31.7 (45)	14.8 (21)	14.1 (20)	100.0	
	3 (97)	9.3 (9)	39.2 (38)	17.5 (17)	19.6 (19)	14.4 (14)	100.0	
	4 (96)	9.4 (9)	36.5 (35)	21.9 (21)	18.8 (18)	13.5 (13)	100.0	

2.3 Differences of Beverage Type by Gender and Grade

즐거먹는 주종에 대한 남녀 학생, 학년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은 소주 63.0%(167명), 맥주 30.2%(80명)의 비율을 보였고, 여학생은 맥주 44.9%(96명), 소주 43.9%(94명)순이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주종 취향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대부분 소주, 맥주를 대표 주종으로 꼽았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막걸리, 양주, 기타 등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음주 주종에 있어서 남학생,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그러나 음주 주종에 있어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Table 4. Differences of Beverage Type by Gender and Grade

(no. of persons)		Beer	Soju	Wine	makkoli	West ern liq.	others	Total	$\chi^2$
		cases	%	%	%	%	%		
Total	(479)	36.7 (176)	54.5 (261)	0.2 (1)	4.2 (20)	1.7 (8)	2.7 (13)	100.	
gender	M (265)	30.2 (80)	63.0 (167)	0.0 (0)	3.0 (8)	1.1 (3)	2.6 (7)	100.	19.035 (P<.01)
	F (214)	44.9 (96)	43.9 (94)	0.5 (1)	5.6 (12)	2.3 (5)	2.8 (6)	100.	
grade	1 (191)	35.1 (67)	53.9 (103)	0.0 (0)	5.8 (11)	1.6 (3)	3.7 (7)	100.	8.819
	2 (122)	35.2 (43)	57.4 (70)	0.8 (1)	3.3 (4)	1.6 (2)	1.6 (2)	100.	
	3 (83)	39.8 (33)	50.6 (42)	0.0 (0)	4.8 (4)	2.4 (2)	2.4 (2)	100.	
	4 (83)	39.8 (33)	55.4 (46)	0.0 (0)	1.2 (1)	1.2 (1)	2.4 (2)	100.	

2.4 Differences of Drinking Volume by Gender and Grade

음주량에 대한 남녀 학생, 학년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은 1회 음주에 5잔 이상을 마시는 비율이 77.7%(206명)에 달하는 반면, 여학생은 54.3%(116명)에 그치고 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음주량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그러나 음주량에 있어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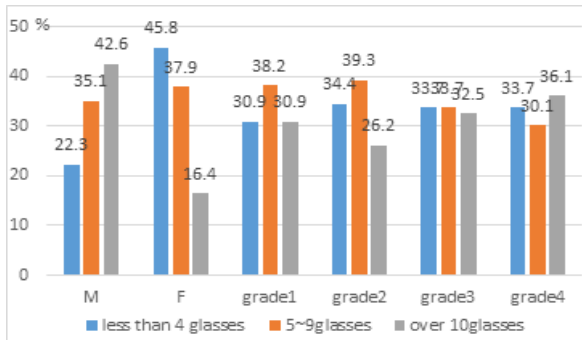


Fig. 2. Differences of Drinking Volume by Gender and Grade

### 2.5 Differences of Onset of Drinking by Gender and Grade

최초 음주시기에 대한 남녀 학생, 학년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이전에 음주를 시작한 비율이 63.8%에 달하며 여학생의 경우는 47.7%이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남녀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 ).

그러나 최초 음주시기에 대해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Table 5. Differences of Onset of Drinking by Gender and Grade

(no. of persons)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Total	$\chi^2$	
		cases	%	%	%	%		
Total	(479)	3.1 (15)	16.9 (81)	36.5 (175)	43.4 (208)	100.0		
gender	M	(265)	3.0 (8)	17.4 (46)	43.4 (115)	36.2 (96)	100.0	14.815 ( $P < .01$ )
	F	(214)	3.3 (7)	16.4 (35)	28.0 (60)	52.3 (112)	100.0	
grade	1	(191)	4.2 (8)	17.3 (33)	34.6 (66)	44.0 (84)	100.0	7.217
	2	(122)	2.5 (3)	13.9 (17)	33.6 (41)	50.0 (61)	100.0	
	3	(83)	1.2 (1)	16.9 (14)	43.4 (36)	38.6 (32)	100.0	
	4	(83)	3.6 (3)	20.5 (17)	38.6 (32)	37.3 (31)	100.0	

### 2.6 Differences of Drinking Frequency within Campus by Gender and Grade

학내 음주 빈도에 대한 남녀 학생, 학년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 학내에서 가끔 또는 자주 마신다는 비율이 44.2%(117명), 여학생은 37.4%(80명)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학내 음주빈도에 있어서 남학생,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그러나 학년별로는 학내 음주빈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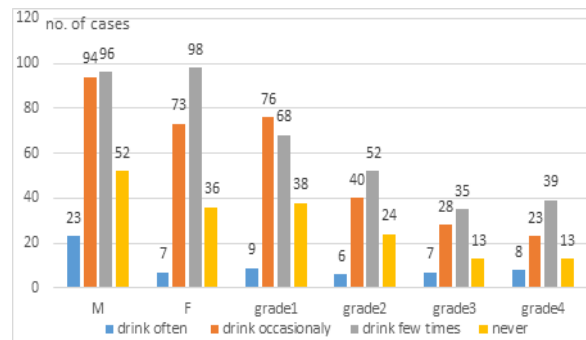


Fig. 3. Differences of Drinking Frequency within Campus by Gender and Grade

### 2.7 Differences of Drinking Intention after Graduation by Gender and Grade

사회 진출 후 음주 의향에 대한 남녀학생, 학년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 사회 진출후 술을 마시겠다는 비율이 83.1%(246명), 여학생은 77.2%(196명)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사회 진출후 음주 의향에서 남녀 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그러나 사회 진출 후 음주 의향에 대해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6).

Table 6. Differences of Drinking Intention after Graduation by Gender and Grade

( ) no. of persons		yes	no	no idea	Total	$\chi^2$	
		cases	%	%	%		
Total	(550)	80.4 (442)	6.7 (37)	12.9 (71)	100.0		
gender	M	(296)	83.1 (246)	7.4 (22)	9.5 (28)	100.0	6.983 ( $p < .05$ )
	F	(254)	77.2 (196)	5.9 (15)	16.9 (43)	100.0	
grade	1	(215)	80.0 (172)	7.0 (15)	13.0 (28)	100.0	2.510
	2	(142)	79.6 (113)	5.6 (8)	14.8 (21)	100.0	
	3	(97)	80.4 (78)	9.3 (9)	10.3 (10)	100.0	
	4	(96)	82.3 (79)	5.2 (5)	12.5 (12)	100.0	

### 2.8 Differences of Prohibition on Drinking & Experience of Damage caused by Drinking within Campus by Gender

Table 7. Differences of Prohibition on Drinking & Experience of Damage caused by Drinking within Campus by Gender

Question	gender	no. of person	average	std. deviation	average standard error	T-value (P-value)	one-way ANOVA F-value (P-value)
prohibition on drinking	M	296	3.25	1.311	.076	1.043 (.298)	2.923 (.088)
	F	254	3.13	1.208	.076		
victimization experience by drinking noise	M	296	2.45	1.134	.066	-1.175 (.240)	2.192 (.139)
	F	254	2.56	1.053	.066		
experience of damage caused by drinking	M	296	2.24	1.057	.061	-.129 (.897)	.826 (.364)
	F	254	2.25	1.036	.065		

학내 음주 금지에 대한 태도에서 남녀 학생 간의 차이를 보면 학내 음주 금지에 대한 찬반에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음주 소란으로 인한 불쾌감의 경험이나 학내 음주로 인한 학업 방해 등 피해 경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Table 7).

**2.9 Differences of Prohibition on Drinking & Experience of Damage caused by Drinking within Campus by Grade**

학내 음주금지에 대한 태도에서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내음주로 인한 피해의 경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내에서 음주 학생들로 인해 학업에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고학년일수록 ‘그렇다’는 대답이 뚜렷이 증가했으며, ‘학내에서 음주 학생들의 큰 대화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체로 고학년일수록 ‘그렇다’라는 대답이 의미 있는 비율로 증가했다(Table 8).

Table 8. Differences of Prohibition on Drinking & Experience of Damage caused by Drinking within Campus by Grade

Question	grade	no. of persons	average	std. deviation	avg. std. error	1way ANOVA F-value	SignificanceProbability
prohibition on drinking	1	215	3.39	1.194	.081	1.312	.270
	2	142	3.07	1.230	.103		
	3	97	3.05	1.341	.136		
	4	96	3.09	1.354	.138		
victimization experience by drinking noise	1	215	2.25	.997	.067	4.501	.004
	2	142	2.62	1.122	.094		
	3	97	2.66	1.126	.114		
	4	96	2.74	1.190	.121		
experience of damage caused by drinking	1	215	2.01	.862	.059	18.405	.000
	2	142	2.30	1.078	.090		
	3	97	2.36	1.165	.118		
	4	96	2.54	1.151	.117		

**2.10 Differences of Prohibition on Drinking by Drinking Frequency in & out of Campus and within Campus**

대학 내 음주 금지에 대한 태도는 대학 내외에서의 음주 빈도와 학내 음주 빈도별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내 음주는 물론이고 교외 MT를 비롯한 캠퍼스 안팎의 평소 음주에서도 음주 빈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내 음주 금지에 대한 매우 강한 반대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9).

Table 9. Differences of Drinking Frequency out of Campus and within Campus

drinking frequency in & out of campus	no. of persons	one-way ANOVA F-value	SignificanceProbability	drinking frequency within campus	no. of persons	one-way ANOVA F-value	SignificanceProbability
beyond once in 2 days	43	23.736	.000	often	30	39.318	.000
once in a week	227			occasionally	167		
once in a month	129			almost not	194		
beyond once in 2 , 3 months	80			never	88		
none	71						

**IV. Conclusions**

우리 사회 인식이 술에 대해 너그러운 면을 반영하듯 학내 음주 금지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중 44.3%가 반대, 27.6%가 찬반 없음, 27%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찬반 없음을 학생들은 평소엔 금지하더라도, 축제나 행사에선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남녀간, 학년별 태도차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음주 빈도 및 학내 음주 빈도, 주중, 음주량, 최초 음주 시기, 사회 진출 후 음주 의향 등에서 남녀 간 유의한 차이를, 학내 음주로 인한 피해 경험에선 학년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음주에 대한 인지적 구조와 심리적 수용에 있어서 전체 학생들의 다소 모순적인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은 음주빈도와 음주량 등에서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평균치가 낮음에도 학내음주금지, 음주소란에 따른 불쾌감이나 학내음주로 인한 학업방해경험 등에서는 남학생과 똑같이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학업 부담과 취업 압박이 커지는 고학년이 될수록 음주소란 불쾌감이 높고, 음주자의 학업 방해에 민감해지는 건 자신의 음주량과 빈도는 그대로이면서 단지 음주에 대한 거부감만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와 관련 논문을 비교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음주 빈도, 음주량을 포함하는 음주 행위에 더 높은 차이를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 젠더 관점에서 여성의 음주행태에 대하여

Table 10. Comparison Results of Related & This Study

	SGChung	SGShin, YKMin	This Study
year	2015	2016	2018
object	Women’s Drinking Behavior from a Gender Perspective: Influence of Marital Status, Childcare, Employment	Drinking Behaviors in Male and Female Drinkers	Drinking Behavior & Attitude Difference by Gender & Grade
resul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or men,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behavior and marriage were not significant</li> <li>- Women showed that marital status, employment status, and sex role attitudes were predicting factors for drinking behavio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le drinkers were higher than female drinkers in drinking frequency, volume, ambivalence, restraint.</li> <li>-male drinkers showed a more positive drinking attitud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le students were higher than female students in drinking frequency, volume, beverage type, drinking intention after graduation, onset of drinking etc.</li> <li>-no difference by grade in above factors</li> <li>-no difference by gender in prohibition on drinking</li> <li>-higher grade is higher in experience of damage caused by drinking</li> </ul>

결혼, 출산, 취업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정슬기는 남성의 경우 결혼 집단이 음주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음주행위와 결혼 상태는 무관하다고 하였으며, 여성은 비혼인 경우 음주빈도, 음주량이 높고, 결혼이 음주 빈도, 음주량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남녀 음주자의 음주 행동 및 관계를 분석한 신수경, 민윤기는 남성이 여성보다 음주빈도, 음주량, 양가감정, 음주 억제 수준이 높았고, 음주에 더 긍정적이라고 하였다[23](Table 10).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스스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들의 금주 캠페인은 형식적인 서약서 작성과 축제 기간 금주 계도활동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캠퍼스 내 음주는 더 이상 대학생 생활 낭만의 상징이 아니며 학내 음주 금지를 ‘자율권 침해’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학내를 포함한 음주 지도에서 성별, 학년별 맞춤형으로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짜고 그룹별로 면밀한 지도 관리 및 개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에서 보다 과감하고 단호하며 일관된 정책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교육정보업체가 대학생들의 알코올과 약물 노출 정도를 지표화해 매년 순위를 발표하여 클린 캠퍼스와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대학 캠퍼스 등 공공장소 내 음주 행위와 술병 휴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 교육 당국과 대학들은 음주문제 만큼은 단순한 ‘포퓰리즘’적 태도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전체 대학생에 대한 정기 검진을 통해 알코올 중독자 및 중독 위험 군을 판별해내고, 전문상담치료나 클리닉을 직접 시행, 권장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육, 보건 당국은 전체 학생의 알코올 중독 여부와 중독 비율, 캠퍼스 내 음주 관련사고 등을 지표화해 대학 평가의 한 요소로 반영하고, 모범 대학에 보상을 주는 등 강력한 선도 정책의 도입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여학생 고 위험 군에 대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여학생은 음주 빈도나 음주량에서 남학생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는 데 반해, 음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학내 음주 금지에 대해 남학생과 비교해 특별히 찬성 의견 비율이 높지 않았는데, 이는 음주로 인해 여학생 스스로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긴장감이나 경계심을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학생 고 위험 군에 대해 전문가를 활용한 심층 상담, 심리 치료, 알코올 치료 등 집중적이고 세심한 관리를 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음주 시 신변 보호를 위한 별도의 학생안전자치위원회 활동 및 협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젊은 남녀 대학생들을 알코올 중독이나 알코올 사용 장애로부터 지키는 일은 대학과 대학생들의 소임으로만 볼 수 없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꿈을 펼칠 대학생들이 음주로부터 자유로워야 국가와 국민의 건강과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JHLee, "Again Drunk Accident within Campus, Prompt Measures should be taken." KBS News Line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051661>), Apr. 6, 2015.
- [2]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rinking in Campus, Problem is Volume than Frequency, Female than Male!", Journal of Students' Drinking Behavior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ment Symposium, 2018.
- [3]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nitoring the Drinking Behavior of Korean Students," Korea Health Statistics, 2017.
- [4] C. A. Crawford, "Monitoring the future national survey results on drug use, 1975-2015; Vol.I Second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youth ministry*, Vol.15, pp.126-127, 2016.
- [5]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eople Health and Nutrition Survey", Korea Health Statistics, 2016.
- [6] JHLee, "Trend Changed, No Alcoholic Festival within Campus.", e-Daily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295606602812200&mediaCodeNo=257&OutLnkChk=Y](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295606602812200&mediaCodeNo=257&OutLnkChk=Y)) May 24, 2013.
- [7] SHPark, "Factors Influencing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 Focused on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Master's degree thesis of Social Welfare Department in University of Seoul, 2008.
- [8] HPark, "The Effects of Drinking Behaviors on Dating Violence of College Students," Master's degree thesis of Social Welfare Department in University of Chungju, 2012.
- [9] JYPark, SAKim, SELee, "Factors Affecting Problem Drinking in Korean College Women,"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Vol.26 No.3 pp291-300, 2017.
- [10] S. C. Wilsnack, "Alcohol use and suicidal behavior in women; longitudinal patterns in a U.S. national sample", *Alcoholism*, Vol. 28, No.5, pp.38-47, 2002.
- [11] HYKim, EKCho, SHKang, JMBae, YJChoi, "α-Glucosidase, Tyrosinase, and Elastase Inhibitory Effects of Enzymatic Extracts from *Ecklonia cava* and its Alcohol Metabolizing Activity," *Journal of Life Science* Vol. 22 No. 6, pp.751-759, 2012.
- [12] J. Kinney, "Loosening the grip; A handbook of alcohol information" *Journal of alcohol and drug*, Vol. 50, pp.33-86, 2006.
- [13] SGChung, "Examining Women's Drinking Behavior from a Gender Perspective: Influence of Marital Status, Childcare, Employment and Sex Role Attitude," *Journal*

- of Critical Social Welfare Vol.47 pp.158-195, 2015.
- [14] National Institute of Alcohol Abuse & Alcoholism (NIAAA), "The effect of alcohol on physiological processes & biological development; Alcohol research & health", *The Journal of the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 Alcoholism*, Vol. 28(3), pp.125-131, 2003, 2005.
- [15] JIKim "The Effects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Drinking Motives on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cademia-industrial technology* Vol. 18 No.5, pp.497-506, 2017.
- [16] D. K. Iwamoto, W. Corbin, K. Fromme, "Trajectory classes of heavy episodic drinking among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Addiction* Vol. 105, No. 11, pp. 1912-1920, 2010.
- [17] A. Bandura, *Social learning theory, Korea Scholarship Information*, pp.253-275, 2002.
- [18] D. L. Thombs, "Introductin to addictive behaviors", *Substance Abuse*, Vol.22, No.3, pp.207-208. New York, NY: Plenum Press. 2001.
- [19] R. W. Wiers, K. J. Hoogeveen, J. A. Sergeant, W. B. Gunning, "High and low dose alcohol-related expectancies and the differential associations with drinking i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ddiction*, Vol.92, No.7, pp.871~888, 1997.
- [20] HSRyu, MJBaek, "Factors Influencing the Drinking Behavior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23 No.3, pp.307-315, 2012.
- [21] HJShin "validation study of coping strategy indicator(CSI)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Master's degree thesis of Education Dept. in Seoul University, 2002.
- [22] D. M. Donovan, S. R. Doyle, T. L. Simpson, "Validation of a nine-dimensional measure of drinking motives for use in clinical applications : the desired effects of drinking scale", *Addictive Behaviors*, Vol. 36, pp.1052-1060, 2011.
- [23] SGShin, YKMin, "The Mediating Effect of Drinking Restrai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Ambivalence and Drinking Behaviors and Problems in Male and Female Drinker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1, pp.419-433, 2016.

## Authors



Jee-Hyun Kim received a Doctor of Computer Science and M.B.A degree of the Information Management, Dankook University in 2004, 1994 respectively, and her B.S. degree of Mathematics, Ewha Womans University in 1978. She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ftware Engineering in Seoil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are Web Engineering, Software Quality Management, Information Retrieval, Big data etc.



Chai-Soo Song received his B.S. from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in Korea University in 1992 and M.Sc from the Department of education in Gachon University in 2013. He is a MD candidate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CHA

University.